

코스피 떠나는 外人... “美 금리인하 기대감 하락 영향”

15일에만 1조1125억 순매도
코스피, 하루 만에 1.91% 하락
美 지난달 PPI, 예상보다 높아



15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51.92포인트(1.91%) 하락한 2666.84로 장을 마친 서울 증권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17.6원)보다 12.9원 오른 1330.5원에 마감했다. /뉴시스

코스피가 23개월만에 되찾은 2700선이 ‘일일천하’로 끝난 가운데, 금리인하 기대가 하락하면서 재탈환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바이 코리아(Buy Korea)’ 흐름을 유지하던 외국인들도 조단위 매도세를 보이면서 반전된 태도를 보였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14일까지 순매수세를 유지하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15일에만 1조1125억원을 순매도하면서 순매도세로 반전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유입과 함께 훈풍을 타던 코스피지수도 추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4일 약 1년 11개월 만에 2700선을 넘기면서 2718.76을 기록했던 코스피지수는 하루만에 1.91% 하락하면서 상승분을 반납했다.

최근 국내 증시는 사실상 외국인들이 이끌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등 국내 증시로의 유입을 유인했지만 기관과 개인투자자들은 이탈하고, 외국인만 잔류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달 국내 증시

에서 기관과 개인은 8942억원, 6조6857억원씩을 팔아치웠다. 반면, 외국인은 홀로 8조2412억원을 사들이면서 하락 압력을 방했다.

이후 정부가 시장의 기대감에 못 미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을 때도 외국인들은 저주가순자산비율(PB

R) 종목들을 담았다. 하지만 15일에는 돌연 1조원이나 던지면서 코스피를 끌어내렸다. 이날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만 1조354억원을 팔아치웠으며, 기관 역시 609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1조193억원들 사들였다.

그 배경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14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는 미국의 2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년 동기보다 0.6%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0.3%보다 다소 높은 수치로 PPI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하자 국내 증시에도 그 여파가 작용한 것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날 발표된 미국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며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이 일부 후퇴했다”며 “채권과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코스피 등 하방압력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코스피가 23개월 만에 2700선에 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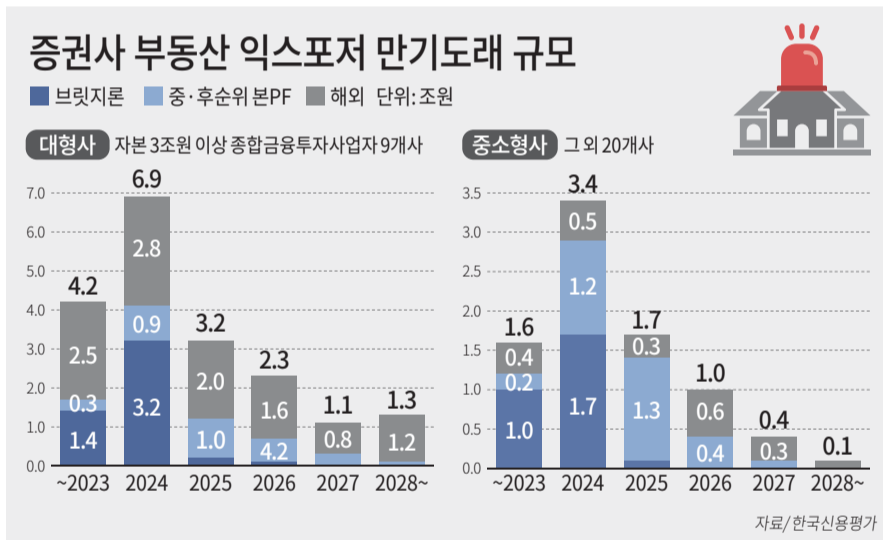
올라섰지만 하루 만에 내려 앉은만큼 쉽게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여진다. 금리인하 기대감이 축소되면서 외국인들의 투심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올해 들어 기관과 개인의 국내 증시 유입이 소극적인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관건은 19~20일(현지시간)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월 물가지표가 다소 실망스러운 수준을 기록한 것은 아쉽지만 2월 물가지표가 6월 금리 인하 확률을 크게 낮추는 요인이 아닌 상황”이라면서도 “3월 FOMC 회의 결과가 예상보다 패악적일 가능성은 커졌다”고 예상했다. 특히 월 FOMC 회의에서 발표되는 점도표가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올해 3회 인하를 전망했던 점도표 내용이 2회 정도로 수정될 확률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증권사, 부동산 익스포저 만기도래 규모 ‘10兆’ 달해

대형사, 브릿지론·본 PF 관련 비중 커
올해 리파이낸싱 리스크 고점에 고비
중소형사, 국내 브릿지론 비중 높아



만기 규모는 약 10조300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특히 대형사는 전체 6조9000억원 중 브릿지론(3조2000억원)의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부동산 본PF(2조 8000억원) 관련 익스포저의 비중이 크

다. 한신평은 대형사들의 해외부동산 관련 익스포저 만기 도래액이 향후 5년 내 올해가 가장 크기 때문에 리파이낸싱 리스크가 가장 고점인 2024년이 고비일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중소형사는 해외부동산(5000억원)보다 국내 사업장의 브릿지론(1조7000억원)과 중·후순위 본 PF 대출(1조2000억원) 익스포저 비중이 훨씬 높았다.

한신평은 개별 PF 사업성(지역, 변제 순위, LTV수준 등)에 따라 변별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형 증권사는 지난해 말 기준 상대적으로 고위험인 국내 부동산금융 대비 총당금을 27.1% 쌓았으나, 같은 기간 중소형 증권사는 19.7%만 설정했다.

한신평은 “지나해 4분기 상당 규모의 총당금 설정했고, 연간 이익규모, 자본 적정성 등 감안 시 업계 전반의 대응력은 존재한다”면서도 “다만 총당금 적립, 유동성 대응 부담으로 재무안정성이 저하되는 일부 중소형 증권사의 신용도 하방 압력은 지속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제마진 강제·국제유가 반등
올해 실적개선 본격화 기대

metro 관심종목
S-Oil

정제유량 강세가 이어지면서 에스오일(S-Oil)의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에스오일의 올해 실적이 크게 회복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주가 상승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5일 에스오일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80% 오른 7만93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올 초에 비하면 13.93% 상승했다. 지난해 4분기 급등했던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찾으면서 에스오일의 주가도 6만원 후반에서 등락을 거듭했으나 올해 들어 실적 개선 기대가 커지면서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제마진 강세가 에스오일의 주가 상승에 힘을 실고 있다. 싱가포르 복합 정제마진은 올해 1분기 배럴당 최고 15.3달러를 기록, 지난해 4분기 평균인 4.1달러에 비해 약 3.7배 상승했다. 이달 들어 계절적 비수기에 진입하면서 복합 정제마진이 5.9달러까지 떨어졌으나 여전히 손익분기점을 넘는 수준이다.

올들어 주요 산유국들이 감산을 연장할 것이라는 기대에 국제 유가가 반등한 점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선물 가격은 지난 14일(현지시간) 기준 배럴당 81.26달러에 마감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에스오일의 1분기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NH투자증권은 에스오일의 올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매출 9조3000억원, 영업이익 5483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에스오일의 향후 주가 전망도 긍정적이다. 윤용식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순수 정유주의 매력 부각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AI 경쟁력 높인다... “규제 불확실성 해소 필요”

금융감독원 ‘금융권 AI 활성화 세미나’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인공지능(AI)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데이터와 다양한 산업군의 데이터를 융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15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권의 건전한 AI 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금융회사 AI 담당 임원 등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부의 AI 정책 추진방향을 금융권에 소개하고 학계와 산업계, 금융권 전문가들과 함께 AI 활용 활성화·책임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김병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AI

우위 선점을 위한 해외 주요국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금융데이터와 다양한 산업군이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가 융합·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원장보는 산·학·연 전문가와 소통을 강화해 AI 혁신의 저해요인을 발굴·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AI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유출 등 리스크요인에 대한 감도방안도 균형감 있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AI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은규 인공지능확산팀장은 “정부의 AI 정책방향과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 세션에서 발표를 맡았다. 이 팀장은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AI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며 “금융권과 질

의·응답을 통해 AI 정책관련 현장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화영 LG AI연구원 상무는 생성형 AI가 다양한 입력형태(멀티모달 AI)를 이해하고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가공(액서너블 AI)하면서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까지 수행이 가능해져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상무는 “클라우드 기반의 초거대 언어모델 대비 데이터 보안에 강점이 있는 온-프레미스(On-premise) 기반의 생성형 AI 시스템 활용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전한 AI 활용 방안 및 금융권 AI 활용사례 공유’ 세션에서는 권태경 연세대 교수가 국내·외 대규모 언어모델(LLM)의 기술적 특성과 데이터 흐름

중심의 AI 동작 방식을 소개했다. 권 교수는 언어모델의 악용, 플러그인 취약점 등 대규모 언어모델의 7대 주요 보안 위협 및 발생원인을 진단하는 한편 접근계정 보안강화, 올바른 언어모델 확장 프로그램 사용 등을 통한 생성형 AI의 안전한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AI를 금융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소개됐다. 참석자 조영서 KB지주 부사장은 생성형 AI 기술검증 사례에 기반한 AI 거버넌스 구축 경험을 공유했다. 조 부사장은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KB 윤리기준·AI 위험도 분류기준 등 위험관리 정책, 통제 프로세스 수립방향을 설명했다.

금융권은 앞으로 AI가 금융혁신의 촉매가 될 수 있도록 학계, 업계, 글로벌 금융감독기구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원관희 기자 wkh@